



예수병원 심장혈관센터 확장 개소

예수병원(신충식 병원장)은 2002년 심혈관 촬영실을 첫 개소하고 20주년을 기념해 심장혈관센터를 확장 개소를 했다고 7일 밝혔다.

20주년을 맞이한 예수병원 순환기내과는 심장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하 'TAVI')을 올해 5월부터 시작해 빠른 시간 내에 판막 시술을 할 수 있는 인증 센터가 마련되었으며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전신마취 후 절개해 인공 펌프를 달고 하는 수술보다 약간의 절개로 치료를 하는 시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수병원 순환기내과는 2009년 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질 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 평가를 시작으로 최근 20년 동안 24시간 심장검사실을 운영하며 심장혈관 조영술 및 중재 시술을 4만례를 달성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전북의 환자들에게 예수병원 순환기 내과에서는 모든 심장 혈관 치료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20년 동안 심어주셨습니다"며 "앞으로 확장된 심장혈관센터에서는 더욱더 정밀한 진단과 치료 연구와 더불어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전문센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김정식 신임 서남권기술사업화협의회 회장 선출



(주)전주대학교 기술자주회사는 서남권기술사업화협의회 제13대 회장에 기술사업화팀 김정식 팀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정식 신임 회장은 "그동안은 거점 국립대 위주의 기술사업화 네트워크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중·소대학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 전담조직)들도 대학대학 TLO들과 나

란히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기술사업화 실무자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남권 기술이전 및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남권기술사업화협의회는 2010년에 발족해 전북, 전남 광주 제주지역의 △대학 TLO(13) △지식재산센터(4) △테크노파크(3) △연구기관 및 기업지원기관(12) △기술지주(5) △민간 TLO(6) 등 총 43개 기관으로 구성된 서남권역 기술이전 유관기관 최대협의체로, 12년째 운영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장수농협, 행복모음 장수카페 개소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은 지난 6일 장수농협 웰컴센터 2층에 행복모음 장수카페를 개소했다.

행복모음 카페는 장수농협 여성농업인, 결혼이민자 등이 자유롭게 모여서 교류, 교육, 문화활동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다.

김용준 조합장은 "행복모음 장수카페는 규모는 작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장수농협 방문 시 커피와 음료를 마시며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농업인끼리 활발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터이다."며 "이 공간을 통해 다 소라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수=조관호 기자



신덕면 이기수씨, 이웃돕기성금 300만원 쾌척

신덕면 하촌마을에 사는 이기수씨(49)가 지난 6일 면사무소를 찾아 2023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의 뜻을 밝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쾌척했다.

그는 과거 건축일을 하다 배우자의 고환인 신덕면으로 귀농해 8년째 휴먼스쿨을 키워 '자연에 휴먼스쿨'을 운영해 지역 내 휴먼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나만의 전공 교육과정 설계'

전주대, 자기설계연계전공 교육과정 공모 시상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7일 대학 본관 접견실에서 자기설계연계전공 교육과정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64개 모집단위 학과 외에도 미래 산업과 지역특화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7개의 연계전공과 19개의 융합전공, 22개의 마이크로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혁신의 범위를 확장해 학생들이 직접 전공을 설계해 볼 수 있도록 자기설계연계전공 제도를 전면 시행해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맞춰 전공 교육과정을 스스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수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7~27일 진행된 자기설계연계전공 공모전은 2023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자기설계연계전공 제도를 확산하고,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전공에 구애 없이 전공명과 진로분야를 기호하고, 2개 이상의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15개 이상 편성하면 된다.

공모에 출품된 새로운 전공 중에서 특표성, 실현 가능성, 진로분야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 그리고 우수상 3명을 선정해 시상과 함께 상금이 전달됐다.

대상상을 받은 이현민 학생(경찰학과, 4년)은 "다양해지는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상담하고 경찰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상담 연계 전공을 설계했다"며 "평소 관심 분야를 전공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향후 학업방향도 설계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황인수 교육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미래 산업과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자기설계연계전공의 시행을 통해 학과 간 경계를 허물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자기설계연계전공은 2023학년도 상반기에 설계 및 이수 신청을 받고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사학과, 70주년 맞아 발전기금 기부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은 전북대학교 사학과 동문과 교수들이 후배들을 위해 7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6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사학과 하태규·김병남·박정민 교수 등을 초청해 발전기금 기증식을 갖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7일 전북대 사학과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4개월 간에 걸쳐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행사 준비와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동문 및 교수들을 중심으로 학과 학생들이 큰 뜻을 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시는 의견들이 확산됐고, 심심야한 기금을 내면서 7천만 원이라는 기금이 마련됐다.

이 기금은 사학과에 지정 기부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하태규 교수는 "사학과 학생들을 위해 선배들이 나서지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동문과 교수들이 심심야한 기금을 모아 우리 학생들이 큰 뜻을 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학금 등 학생들을 위한 곳에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과는 지난 1951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2,2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윤희철)은 국립대병원 최초로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표준규격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7일 획득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사업장 내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인증에 앞서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절차서 17종 지침서 26종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틀을 마련했다.

건설현장 등 도급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안전작업허가제와 작업중지제를 마련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에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평가와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등도 도입했다.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병원의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과 전 병동 및 작업장 위험요인 발굴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윤희철 병원장은 "이번 ISO 45001 인증 획득이 안전보건경영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안전보건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며, 병원 직원 뿐 아니라 우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 및 내원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의 위상을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군, 울 아동정책영향평가 장려상 수상

진안군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다. 우수지자체는 자체평가 실시 건수, 자체평가 교육 참여도, 자체평가 조사 참여도, 자체평가 충실성, 이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올해는 전국에서 1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진안군은 지역이동센터 연합캠프사업과 아동돌봄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과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지표로 자체평가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권리 관점에서 아동 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신용건설 김문옥 대표, 진안읍에 안전손잡이 기부

진안군 진안읍(읍장 황양익)은 7일 관내 건설업체인 신용건설 김문옥 대표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손잡이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신용건설 김문옥 대표는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평소에도 관내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관내 어르신 중 과거 위암수술 및 심장동맥이완술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주택의 입구 경사로(보방)가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항상 갖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자, 이번 안전손잡이 기부 및 설치를 결심하게 됐다. 또한 구입과 직접 나서 안전손잡이를 설치까지 완료해 대상자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김대표는 "계단이 높아 도움 없이는 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준 덕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김 대표는 "생명과 직결되는 낙상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를 설치해드렸다. 앞으로도 주변 이웃을 살피고 재능 기부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조규철 고창군의원, 호남유권자연합 최우수 기초의원상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조규철 의원은 지난 6일 호남유권자연합이 선정하는 2022 최우수 기초의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호남유권자연합은 지난 2000년 5월 '정치개혁'이라는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고 '도덕성'이라는 미래 한국 정치의 희망을 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창립되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단체로서 6일 광주광역시 4.19혁명 기념관에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공헌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조 의원은 고창군의회 4선은 의원으로서, 8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였고, 지금 9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조규철 의원은 "호남유권자연합이 수여하는 2022 최우수 기초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4선 군의원으로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아교육진흥원, 강사 초청 직원 친절교육

유아교육진흥원(원장 박순정)은 지난 6일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주)한국인재경영교육원 대표 강사를 초청해 '통하는 친절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단계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 △단계 고객 필요를 파악한다 △3단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 △4단계 고객이 당신을 다시 찾아오도록 한다 등 이었다.

한편 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 2021년도 민원서비스 모니터링 평가에서는 5위에 그쳤지만 지속적인 친절도 향상 노력으로 올해는 전라북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중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박순정 원장은 "친절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한다. 우리 원은 친절마인드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농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운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전북도가 지원하는 농기계 관련 운전·정비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등 농기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과 농업기계 직무항상교육과정 등 농업기계를 능률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내 농업기계 산업체로의 취업을 열망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전문기술교육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호응이 높다.

정상모 총장은 "농기계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농기계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춰 기계설비 제작 수리 정비 안전관리 등 실무능력을 겸비한 농기계 정비 전문인력을 양성해 도내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